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원,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이덕희*

¹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The Mediated Effects of Self Esteem, Social Support, and Stress Cop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of Multi Cultural Youth

Deok-Hee Lee^{1*}

¹Dept. of Social Welfare, Sill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 상태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대처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여 향후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원,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원과 자아존중감에는 음(-)의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스트레스 대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못했다. 이어서 분석한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원, 자아존중감은 모두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self-esteem by grasping the adaptation state of the stress and school multi-cultural youth, social support, and analyzed the changes that appear in response to them coping with stress. By utilizing the structural equations for tha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aptation to stress and school multi-cultural youth, in terms of coping with stress, social support, and examined the effect of adjusting the self-esteem of the paramet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Stress multi-cultural youth,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are affected. On the other hand, a significant effect on coping with stress was not detected. Subsequently, to cope with the stress analyzed, social support, self-esteem effects of the defined parameters revealed a relationship between the adaptation to all stresses and school life.

Keywords : Multi Cultural Youth, Stress, Stress Coping, Social Support, Self Esteem

1. 서론

최근 지구촌화로 인한 국제결혼 및 이민이 활발해짐에 따라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의 문제점과 관련된 관심이 증가되면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사회 융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다. 박하나[7]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나 외국인 근로자가정 자녀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한정된 이주의 배경을 가진 가정의 자녀임을 고려한다면 다문화 청소년은 탈북 청소년 및 중도입국 청소년까지도 포함한 집단이라 볼 수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가정이나 근로를 목적으로 입국한

*Corresponding Author : Deok-Hee Lee(Silla Univ.)

Tel: +82-10-9955-9136 email: hee3477@naver.com

Received November 19, 2015

Revised (1st December 14, 2015, 2nd January 4, 2016)

Accepted January 5, 2016

Published January 31, 2016

가정의 청소년들은 서로 인종적·문화적 갈등을 겪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장하면서 많은 갈등과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문제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적응 문제는 다른 청소년이 겪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만약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는 전 생애 주기과정에서 청소년기가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이며,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청소년 시기는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기 쉬운 시기이다[1]. 왜냐 하면,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아직 성인의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가지지 못한 불분명한 중간적인 시기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시기는 방황의 시기이기도 하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과 자신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은 문화의 이질감과 친구들과의 교우관계에 있어서 더욱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관리가 더 중요한데, 이는 자라온 환경의 급격한 변동으로 새로운 규범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행이 일어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괴리감 때문에 비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문화 청소년의 관리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이다.

청소년기에는 자아개념 역시 보다 세분화되고, 이 영역들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시기이며, 한 인간으로서 행동기준과 가치관의 정립 및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존경하는 태도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다[2].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큰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개인의 의지 및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에서 심리적·정서적 지원의 정도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3].

이러한 사회적 관계 및 개인의 의지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 사회지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세대를 위한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들을 수용하는 주변인들의 태도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청소년기의 경우 정신적 건강에 취약한데, 자신의 성장과 향후 진로에 대한 고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변화 등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고립감과 위축감 등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선행연구들[4,5,6]에 의하면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사회·문화적 문제를 포함한 복합적인 이유로 같은 시기의 일반 청소년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청소년보다 더 많은 불공평을 감내하고 받아들이기를 강요받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변화와 관련되어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심리적 증상이 단순히 2차 성징의 영향으로 인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스트레스 등과 같은 다양한 외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정신건강의 필요한 일부로써, 인간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 즉,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뜻한다[4]. 또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보살핌이나 존경, 애정 등을 느끼고 가치가 있다고 믿게 해주는 정보로서 신체적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 보호적 효과와 건강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의 충격을 완화 혹은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5].

특히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동아리 모임과 여가활동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소속감을 부여하여 그들의 불안감과 고독감을 감소시켜 주는 신체적·정신적·정보적 지원의 역할을 한다.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로부터 오는 정서적 관심, 위로, 실질적인 도움과 이해의 교환을 의미하며, 자신이 관심과 사랑받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지각하게 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회적 지원에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시도는 부족하였다. 이외에도 자아 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몇몇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이러한 독립 변인에 대한 영향 정도만을 검증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매개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대처가 어떠한 매개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측정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향후 다문화 청소년이 올바르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 상태를 파악하고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대처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 하였다.

연구문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대처에 따른 매개효과가 존재하는가?

2. 이론적 고찰

2.1 다문화가정 청소년

2.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의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국가나 인종을 가진 상대와 결합한 가정을 의미한다. 즉, 다문화가정이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구성된 가족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란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청소년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주의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을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한정하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현황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은 언어와 문화라는 장벽 앞

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김계하[8]의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언어사용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문화적 차이 역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큰 요소이다. 국외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이주한 경우, 한국의 환경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청소년기는 감정의 기복과 사회적 영향에 좌지우지되는 만큼 이들이 한국생활 및 학업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갖게 만든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열이라는 특성 상 학업을 따라가기 힘든 상황에 도달하게 되어, 학습에 대한 이해 부족, 사회적 편견과 차별, 집단따돌림,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등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처럼 다문화 청소년은 비다문화 청소년과는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교생활부적응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을 살펴본 다수의 선행연구[10,11]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비다문화 청소년보다 학교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1.3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정신적으로 극복력이 약한 청소년에게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는 학습능력의 부진, 교사 및 교우와의 불만족한 대인관계, 부적절한 행동과 정서표출, 우울 등의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 여러 연구결과,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12,13].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부적상관을 보일 것으로 추론하여 청소년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점검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

2.2 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 대처란 개인의 적응 자원을 초과하거나 힘들다고 평가되는 내적·외적 요구, 그리고 그 요구들 간의 갈등을 다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지적·행동적 노력으로 정의되며[11],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란 스트레스 시에 느끼는 감정을 조절하거나 감소시키고자 하는 행동의 방식이다.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스

트레스의 강도가 달라진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분류하는 기준은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문제 중심적, 정서 중심적, 회피 중심적, 사회적 지지 추구 등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문제집중적 대처방식이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이란 스트레스와 관련한 감정 상태를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대처 방식이다. 회피 중심적 대처방식이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단 그 상황을 피하려 하는 대처방식이며,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이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받으려하는 대처방식이다[12].

다양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문제집중적이고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대처 방식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과 회피 방식을 사용할 경우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Folkman과 Lazarus[14]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기초로 김정희[12]가 요인 분석한 4개의 범주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살펴 보고자 한다.

2.3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은 사회적 지지라고도 불리우며, 자신이 사회 내에서 존중받고 그들의 일원이라고 믿게 만드는 행위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정서·물질·정보 등 필요 욕구에 대해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15].

1970년대 중반부터 사회적 지지는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어 왔다. Aneshandel과 Stone[16]은 사회적인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이겨 낼 수 있는 적응력이 강화되는 반면,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Cohen과 Hoberman[17]은 사회적 지지를 유형적, 평가적, 자아존중감, 소속감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유형적 지지는 경제적 도움이나 물질적 자원을 받는 것을 말하며, 평가적 지지란 어려운 문제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충고를 받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자아존중

감 지지는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높이 평가되고 수용되는 것을 말하며, 소속감 지지는 여가시간을 타인과 함께 보내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보다 좀 더 확장되고 넓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게 된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친구관계의 범위가 일반 학생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활발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의 차이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경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친구들은 같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많았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교류의 범위도 작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정부 및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2.4 자아존중감

Rosenberg[18]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이 자신의 가치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써 자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라고 정의했다. 즉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높은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좋아하고 수용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가치, 감정, 목표, 사고방식, 욕구 등 자신의 성격 및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김혜미 외[19]는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발달과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행동의 중요한 동기이자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심리적 혼란이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저조하거나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문제들이 유발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5 학교생활적응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장소로 가정, 사회와 함께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아가 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인지, 정의, 신체적 능력과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곳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학교는 대입과 여러 가

지 사회적 환경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기의 심리, 정서적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점점 사회에 적응하는 힘을 배우고 길러가게 된다. 또한 청소년들은 학교 내에서 기존과는 다른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그들에게 지금까지 형성되어 있는 인성이나 태도 등을 좀 더 성숙하게 하면서 변화도 가져와 학교에 대한 적응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0].

학교생활 적응은 학업성취도와 더불어 학교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학교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며[21],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업적, 사회적 측면에 순응하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학생의 행동이다[22].

청소년에게 학교는 교사와의 소통, 친구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사회관계의 장으로 청소년들은 일과와 대부분을 학교라는 집단 내에서 생활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성취가 이후의 사회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의 의미는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행동 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되며, 학생의 모든 행동이 학교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교사, 또래친구 등 의미 있는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가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건강한 성장을 결정하고 이후 성인기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대처가 매개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특성상 유의적 샘플링을 사용하였는데, 유의적 샘플링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선택에 따른 채취 방법으로 선행연구나 정보가 있을 경우 또는 현장 방문에 의한 시각적 정보, 현장 채

취 요원의 개인적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채취지점을 선정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의적 샘플링 방법은 연구 기간이 짧고,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때, 과거 측정지점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을 때, 특정지점의 오염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선택한다. 따라서 부산에 거주하는 다문화 청소년(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50명의 학생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설문 및 연구의 목적에 대한 내용을 사전 이해시켰으며, 설문조사 방법은 자기기입식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제 부산지역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14년도 기준, 2,770명으로 그 중 초등학생이 2,039명, 중학생 470명, 고등학생 261명으로 나타났다[23], 전체 부산지역의 다문화 중·고등학생 731명 중 6.84%이 본 연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모수가 작기 때문에 50부의 설문도 유의미한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3].

설문 기간은 2015년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는 그 즉시 다시 보완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5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로서 SPSS WIN 20.0과 AMOS 20.0을 사용하였다.

3.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대처가 어떠한 매개효과를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간에 관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대처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함을 가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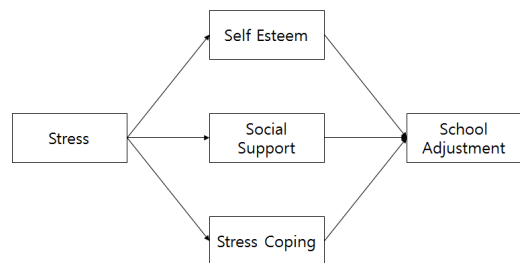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of regulatory effect

3.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 간에 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연구문제와 이러한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대처 간의 매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고자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법을 실시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3.4 측정 도구

3.4.1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지는 민하영과 유안진[24]의 연구를 참조하여 재구성 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스트레스 척도의 가장 작은 신뢰도 계수는 $\alpha = .842$ 로 모두 기준치 0.7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지의 항목의 신뢰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은 공부(6문항), 인간관계(8문항), 수업참여(4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각 문항은 ‘거의 받지 않았다’(1점) ~ ‘매우 많이 받았다’(5점)로 구성하였다. 응답문항의 평균점수가 높다는 것은 학업성취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4.2 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 대처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노력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대처란 개인이 이러한 스트레스를 다루어 가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스트레스의 대처는 크게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분류되며, 적극적 대처에서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원추구 대체 요인으로 구성되며, 소극적 대처는 소망적 사고대처와 정서 중심적 대처의 요인으로 구성한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대처는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구분한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Folkman과 Lazarus[14]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Folkman과 Lazarus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기초로 김정희[12]가 요인 분석한 4개의 범주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3.4.3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은 개인의 심리적·생리적 효과를 약화시키는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제공된 사회적 지원에 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정서적, 물질적, 수단적 지원으로 구성된다.

3.4.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유현숙, 이희완, 도명애[25]의 연구에서 사용된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항목은 “나 자신이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많은 장점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대체로 나는 실패자라는 느낌이 드는 편이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 자신에 대해 별로 자랑할 게 없다고 느낀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체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의 8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4.5 학교생활 적응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문항은 선행연구의 학교생활 적응 척도를 근거로 하여 김아영[26]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의 변수별 문항 수는 교사관계 6문항, 교우관계 8문항, 학교수업 6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4.6 측정도구의 타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선행연구에 의거하여 선정되었으나 본 연구에 적합한지 검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측정 변수에 대해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원,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요인을 선정하고 정교화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한 신뢰성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스트레스는 .842, 스트레스 대처는 .831, 사회적 지원은 .830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849, 학교생활적응은 .834로 나타나 Cronbach's alpha 값이 0.7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4. 연구 결과

4.1 인구통계학적 분석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해보면 남학생이 24%, 여학생이 76%로 여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중학생이 80%, 고등학생이 20%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지역의 학생 수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형편은 300만원 이하가 76%로 일반적인 평균보다 소득이 적은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한국 거주 기간은 5년 미만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항목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Division	Frequency	Rate
Sex	Male	12	24%
	Female	38	76%
Grade	Middle School 1	21	42%
	Middle School 2	-	-
	Middle School 3	19	38%
	High School 1	10	20%
	High School 1	-	-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million won)	~ 100	9	18%
	100 ~ 200	27	54%
	200 ~ 300	11	22%
	300 ~ 400	1	2%
	400 ~ 500	1	2%
Residence of Korea	More than 500	1	2%
	1 ~ 3 years	33	66%
	4 ~ 5 years	14	28%
	6 ~ 7 years	2	4%
	8 years ~	1	2%
Total		50	100%

4.2 매개효과 분석

4.2.1 확인적 요인분석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0.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중요한 것이 적합도의 적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 RMSEA는 0.05이하, GFI, NFI, CFI는 0.9이상, AGFI는 0.8이상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chi^2=454.348$ (df=107, p=0.000), $\chi^2/df=4.246$, RMR=0.046, GFI=0.921, AGFI=0.873, IFI=0.913, NFI=0.927, CFI=0.910으로 나타나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는 본 모형의 모형적합도 지수를 나타낸다. 본 모형에서 표준화된 적재치는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났고, 개별 측정변수들의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는 0.7이상으로 나타났으며, AVE(분산추출값)은 0.5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에 관련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어 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4.2.2 구조방정식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 모형의 전체적인 구조모형을 검정한 결과, $\chi^2=460.435$ (df=112, p=0.000), $\chi^2/df=4.111$, RMR=0.043, GFI=0.912, AGFI=0.859, IFI=0.912, NFI=0.925, CFI=0.910을 갖는 모형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모형은 공분산 구조분석의 일반적인 평가지표들과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기에 모형은 적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2. Result of CFA

Factor	Details question	Standard load value	S.E	t-value	C.R	AVE
Stress	Relationships	.938	.132	21.023	.918	.790
	Study	.819	.373	16.410		
	Class participation	.915	.131	-		
Stress Coping	Active coping	.776	.201	-	.931	.873
	Passive coping	.973	.025	11.039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860	.067	18.707	.915	.783
	Material support	.824	.317	15.321		
	Instrumental support	.860	.265	-		
Self Esteem	Confidence	.842	.316	10.648	.854	.745
	Respect	.940	.131	6.943		
	Satisfaction	.714	.583	-		
School Adjustment	Relationship of teacher	.793	.051	12.994	.704	.569
	Friendship	.659	.740	4.057		
	School classes	.531	.322	-		

Table 3. Result of SEM

Path	Path Coefficients	S.E	t	P-value
Stress → Social Support	-0.158	0.064	-2.482	.013**
Stress → Stress Coping	-0.046	0.063	-0.736	.462
Stress → Self Esteem	-0.499	0.072	-6.947	.000***
Social Support → School Adjustment	0.460	0.12	3.851	.000***
Stress Coping → School Adjustment	0.190	0.064	2.963	.003**
Self Esteem → School Adjustment	0.353	0.076	4.633	.000***

***p<.001, **p<.01, *p<.05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원,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요인 간의 관계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 및 변인 간 관계성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연구 및 검증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구조방정식 모델의 전반적 적합도 검증 결과이다. 대부분의 지수가 수용 기준을 넘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모델의 적합도는 우수하여 수집된 자료들이 연구 모델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측정도구의 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신뢰도와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높은 관찰변인을 추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집중타당도는 표준요인 적재량이 전반적으로 0.7이상의 적재치를 나타내 타당도가 확보되었으며, 신뢰도는 모든 잠재변인 내에서 내적 일치도의 개념 신뢰도 0.7이상, 평균분산추출지수 0.5이상의 값들이 산출되어 전반적인 신뢰도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연구함에 있어서 구조방정식을 적용한 유사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요인 분석을 통해 요인적재량이 높은 문항들을 추출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잠재변인의 관찰변인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결국 본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델은 적합 타당도 검증과 평가에서 큰 문제가 없이 검증되어 수정 모델 없이 최종 모델로 수용됨에 따라 변인간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원,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원과 자아존중감에는 음(-)의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스트레스 대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못했다. 이어서 분석한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원, 자아존중감은 모두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정(+)의 매개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원,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문화 학생들에게 적절한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 자아존중감 확대 등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다면 학업을 그만두는 다문화 청소년을 감소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여 위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에서 보완해야할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부산지역에 한정하였는데, 추후 우리나라의 전 지역을 토대로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매개효과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대처, 사회적 지원, 자아존중감만으로 연구 변수의 범위를 한정하였는데, 추가적인 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을 변인 간의 관계를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범위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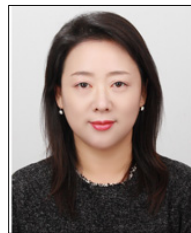
References

- [1] Puberty, "Integration discussed the concept dictionary, puberty", blue document publishing, 2007.
- [2] M.S.Kim, "Volunteer characteristics of activities, research on the effects on the self-esteem of family health outcomes young people: to target the Henan", the Master's thesis of Konkuk University, 2013.
- [3] H.Y.Jo, C.H.Lee, S.H.Gwon, D.H.Seo, U.H.Lee, "Many

- children of school life realities of cultural family and teachers and students of the water-soluble of research. Korea Women's Policy Research Institute, Korea Youth Policy Research Institute, *Economic and Humanities and Social Research Council Cooperative Research Monographs 07-19-05*, pp.134, 2007.
- [4] Cobb, Sidney,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38, No.5, pp.300-314, 1976.
DOI: <http://dx.doi.org/10.1097/00006842-197609000-00003>
- [5] C.S.Ka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youth of self-resilience and school adaptation", Master's thesis, Princes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08.
- [6] H.K.Kang, "Social support and children of the self-elasticity". *Home Journal*, Vol.44, No.11, pp.149-159, 2006.
- [7] H.N.Park, Y.D.Cho, Y.K.Park,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course educ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Multicultural Education and Research*, Vol.6, No.1 pp.21-49, 2013.
- [8] K.H.Kim, J.J.Seon, S.H.Oh, "selection State, Osukufui, husband of the stres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self-esteem and a sense of helplessness", *community nursing Journal*, Vol.24, No.1, pp.29-39, 2013.
- [9] K.S.Jeon, "life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homes of youth of the Gyeonggi region: Focusing on school life and family lif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Chapter*, Vol.16, No.1, pp.167-185, 2008
- [10] S.B.Choi, J.E.Lim, H.J.Ju, "structural analysis between the change factors that affect the recognition of the multi-cultural", *Korea teacher education research*, Vol.28, No.4, pp.305-330, 2011.
- [11] W.G.Lim, E.K.Oh, "parent of rearing stress predictor of study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n Care Management Studies*, No.11, pp.173-200, 2014.
- [12] J.H.Kim, "Perceived stress, acting against the melancholy of cognitive set and Workarounds",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987.
- [13] J.H.Bae, "Research and Workarounds high school school stress about the impact on the school adaptation", Master's thesis, Soongsil school, Seoul, 2002.
- [14] CLazarus, Richard S., and Susan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pp.725, 1984.
- [15] Gimuhyonmi, "impact and regulatory effects of the study of social support that self-control sense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is on the loneliness", Mogu-on University School graduate doctoral thesis, 2014.
- [16] Carol S. Aneshensel, Jeffrey D. Stone,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Buffering Model of Social Support Arch Gen Psychiatry*, Vol.39, No.12, pp.1392-1396, 1982.
- [17] Cohen, S., Hoberman, H,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13, pp.99-125, 1983.
DOI: <http://dx.doi.org/10.1111/j.1559-1816.1983.tb02325.x>
- [18] Rosenberg. M,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 1965.
- [19] H.M.Kim, H.J.Moon, H.R.Jang, "Study on the change and impact factor of adulthood self-esteem", *South Korea Social Welfare*, Vol.67, No.1, pp.83-107, 2015.
- [20] S.J.Mo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aptation to children of stress and school life", master's thesis of Korea Teachers University, 2004
- [21] Negru, O., Baban, A, "Positive development in school settings: School environment influences on perceived school adjustment in a Romanian adolescent sample", *Cognitie, Creier, Comportament*, Vol.13, No.3, pp.253, 2009.
- [22] A.S.Hong, "social suppor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ived, academic self-efficacy, adaptation effect on the school happiness and achievement to school life", Dong-A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3.
- [23] Statistical Office, View statistics Busan Education, 2014.
- [24] H.Y.Min, A.J.Yu, "Effects of rearing behavior and children's coping behavior of the parents the child was late for school-age is on the parent to the related stress", *home Journal*, Vol.37, No.9, pp.1-12, 1998.
- [25] H.S.Yu, H.W.Lee, M.A.Do, "cognitive behavioral group counseling nursing home, effect on self-esteem of the elderly", *mental health and social business*, Vol.40, No.2, pp.117-137, 2012.
- [26] A.Y.Kim, "academic synchronization scale standardization research", *educational evaluation research*, Vol.15, No.1, pp.157-184, 2002.

이 덕 희(Deok-Hee Lee)

[정회원]



- 2008년 8월 :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14년 2월 :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아동, 청소년복지(다문화), 지역복지, 교정복지